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9월 '독서의 달' 맞아 독서행사 운영

'독서 생활화' 도모하기 위해 다채로운 독서행사 운영

오세나 작가, '나만의 책 만들기' 내달 12일 진행 예정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관장 장문수)이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친 지역 주민들의 심신을 위로하고 독서 생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채로운 독서행사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도서관 부분 개방 등 잦은 운영 변경으로 반납 시기를 놓친 이용자들은 9월 중 연체 도서 반납 시 대출정지 해제가 가능하니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면 된다.

한국출판협동조합의 도움을 받아 '오세나 그림책 작가와 함께 하는 나만의 책 만들기' 행사가 오는 9월12일 오전 10시30분 진행될 예정이고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행사인 '봐보랑께:내가 추천하는 한 권의 책'은 9월1~15일 진행하며, 참여자가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을 홈페이지에 올리면 그 중 100명을 추첨해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고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전시로는 '볼로냐국제아동도서전 수상작', '해외아동문학상 수상작', '포스트 코로나' 등의 '주제 도서전'과 '원화 전시회'를 9월 중 운영할 계획이다.

또 9월20·27일 이틀 동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영어놀이연극은 초등학생들의 영어도서에 대한 관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전년도 '잡지 무료 배부', '가족영어동화읽기', '냠냠 책 먹는 아이들' 등 다양한 독서프로그램도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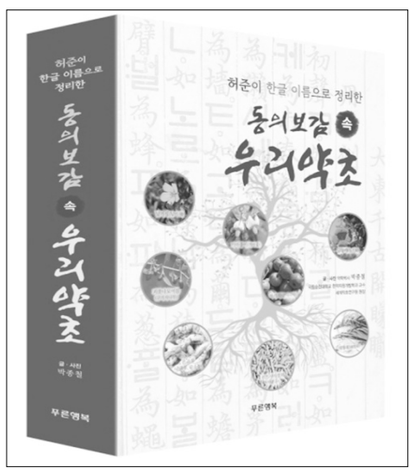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장문수 관장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우리 회관에서 다양한 독서 행사를 진행하니, 참가자들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 씻기 등 코로나19 예방에 협조하며 도서관의 즐거움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홈페이지(http://lib.gen.go.kr/gecs/)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문헌정보과(☎380-8871)로 문의하면 된다.

조인호 기자

순천대 박종철 교수, '허준이 한글이름으로 정리한 동의보감 속 우리약초' 펴내

조선시대에 한글이름으로 기록된 222종 약재



순천대학교 박종철(65, 한약자원개발학과) 교수가 국내 처음으로 조선시대에 한글 이름으로 기록된 동의보감 속 약초를 소개하는 도감을 펴냈다.

이번에 발간된 '허준이 한글이름으로 정리한 동의보감 속 우리약초'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하는 약초 중에서 '동의보감'에 조선시대에 한글이름으로 기록된 222종의 약재를 찾아 선보이는 도감이다. '동의보감' 발간 당시 조선시대의 약재명이 현재까지 그대로 쓰이는 약초는, 녹두, 대추, 모과, 비자, 생강, 오미자, 향부자 등이다.

724페이지에 달하는 도감은 박 교수가 직접 촬영한 풍부한 약초 사진은 물론 '동의보감' 원문과 효능, 약효해설, 기원동·식물의 해설, 비교약초, 약용법 그리고 북한에서 사용하는 효능까지 담아 독자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박종철 교수는 식약처 공정서에서 발견한 수세미오이, 비주누고, 재등에, 띠띤가뢰, 누에 등의 학명 오류를 발견해 수정한 내용을 소개하고, 본인이 국내·외에 발표한 학술논문의 약리작용을 싣기도 했으며, 기원식물과 비슷한 약초 사진도 게재하여 독자들에게 정확한 약초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다.

2015년부터 꾸준히 우리나라 의약품 공정서에 수록된 약초의 사진을 촬영하고 그 효능을 조사해온 박 교수는 "조선시대에 사용했던 한글 약초명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내용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한 자료라고 여겨 책자 발간을 기획하게 되었다"며 "33년 6개월 동안 약초 강의와 연구로 보낸 순천대를 떠나며 퇴임 기념도서로서 이 책자를 발간해 감회가 새롭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보성교육청, '부패척결 및 청렴실천 다짐 릴레이'

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백남근)은 8월 26일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각 과 부서를 돌며 공직자의 반부패 청렴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청렴실천 다짐 릴레이"를 실시했다.

이번 청렴실천 다짐 릴레이는 백남근교육장의 청렴실천 다짐문 낭독과 함께 평소 공직자로서 마음에 담고 있는 청렴 다짐을 자필로 작성해 표명하고 소속 직원중 1명에게 청렴 다짐서를 전달하고, 청렴 다짐서를 받은 직원은 청렴 다짐을 작성하고 이를 다시 다른 직원에게 릴레이로 전달해 소속직원 모두에게 청렴다짐이 전파 되도록 했다. 청렴실천 다짐을 통해 공직자로서 솔선수범하여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금품, 향응 행위를 받지 않을 것이며,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 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제 갓 들어온 새내기 공무원들에게 공정하지 못한 일에 길들지 않고 꺾이지 않되 상황을 유연하게 헤쳐나가는 요령들을 차차 배워가기를 강조했다.

보성=김덕순 기자

여수시립도서관, '인문학 강연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

내달까지 '인문독서아카데미' 실시간 라이브 강연

"답답한 코로나 시대에서 유익한 인문학 강연을 온라인으로 접할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코로나19 걱정은 물론 시간 및 장소도 구애받지 않는 강연입니다"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 인문학 강연 방식을 비대면 온라인 으로 전환해 시민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코로나19로 공공시설이 운영중단에 들어가고 공연 등이 취소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문화 욕구 충족과 더불어 강사들의 생계 안정을 동시에 잡았다는 평이다.

인기 인문학 프로그램인 '인문독서아카데미'는 7월 28일을 시작으로 네이버 밴드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지난 강의에서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외치며 시민들과 함께 웃고 울었던 최원형 강사를 이어, '4차 산업혁명이 만들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된 박재용 강사의 첫 강의도 반응이 뜨겁다. 앞으로 남은 12강~15강은 여수시이순신도서관(☎659-2862)으로 전화하거나 여수시립도서관 홈페이지(https://yslib.yeosu.go.kr/front/)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인문독서아카데미는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실시한 공모사업에 여수시가 선정돼 6월부터 9월까지 '내 삶을 살리는 변화, 모두를 위한 환경'이라는 주제로 총 15회의 인문학 강의를 운영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정선웅 기자

전남교육청, 전 직원 대상 정보보호교육 실시

코로나19 위기 속 다양한 개인정보 침해 대응역량 강화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개인정보 침해사고나 원격교육 시 사이버 공격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호 분야 업무역량 강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25일 오전 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2020년 정보보호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현장에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40여 명만 참석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각자의 사무실에서 청 내 방송으로 시청했다.

도교육청은 이 날 유관기관 강사를 초빙해 코로나19와 관련해 최근 발생한 원격교육 소프트웨어 보안사고, 지자체 공무원들의 확진자 개인정보 유출, 이메일 사고 등 다양한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소개하고 그에 대응하는 보안강화 방안을 교육했다.

이날 교육은 직원들에게 정보보안의 중요성과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책임의식을 일깨워줌은 물론 선진화 사회로 가기 위한 디딤돌을 마련해준 것으로 평가됐다.

교육에 참여한 한 주무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비대면이 일상화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이메일도 본인이 보안에 관심을 갖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